



이 세상은 모두 목적 있는 삶을 산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하물며 인간의 삶은 더욱 특정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그 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다. 방향은 아니더라도 잠시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때 인생변화가 일어난다. 이민은 수많은 인생변환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다. 잘 자라던 소나무가 뿌리째 달랑 잘려서 동그란 흙덩어리 하나로 옮겨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 소나무동치처럼 정신과 육체는 그대로 보존한 채, 뿌리만 땁경 잘려서 옮겨지는 것이 이민이다.

이런 뿌리 잘리고 토양 바꾸는 이

는 각자 다르다. 종교, 일, 골프 등 다양한 형태로 극복의 길을 찾기도 한다.

둘째는 의사소통의 부족이다. 만족은 제일 먼저 물질로부터 온다. 이민 전보다 이민 후가 풍족해지면, 대개는 물질적 만족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물질은 만족의 도구이지, 목적이나 충분조건이 아니다. 물질적 충족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민생활의 고통은 대개 언어에 내재한다. 언어는 생각이다. 생각은 대화다. 대화는 이해다. 이해는 상호발전이며 새로운 문화적 접촉이다. 새로움을 수용하면, 이미 이민자가 아니라 현지인이 되어간다. 언어를 수용하지 못한 자는 영원

히 자기 섬에 묶여 사는 토빈슨 크루소다.

셋째는 적극적 목적과 달성 의지의 부재(不在)다. 고난도 인생의 목적이다. 고통의 계곡을 지나면, 너른 초장(草場)이 나온다. 고통의 계곡은 수천 가지의 이름이 있다. 그 중에서 모든 이민자는 먼저 굴욕의 계곡을 지나게 된다. 과거의 훈장과 풍채는 벗겨지고, 모두 초라한 군복 입은 훈련병이 되고 만다. 이민은 현지인의 카랑이 밀을 빠져나가는 한신(韓信)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단기 목표를 가진 항우(項羽)가 아니라 장기 목적을 세운 유방(劉邦)이 되어야 한다.

굴욕은 꿈이 있는 자의 용기다. 이해심 많은 자는 허를 아낀다. 지금 부딪혀봐야 손해보는 행동은 대장군답게 하지 않는 게 낫다. 먼 훗날 기쁨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서 고개 숙이고 참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굴욕의 계곡을 지나는 태도에 따라서, 이민생활은 달라진다. 고개를 들거나 숙이기는 각자 마음이지만, 목적은 너무 다르다. 꿈 있는 이민자여! 고개 숙이며 건달들의 아랫도리 밑을 기어갈 때, 그들 '물건' 큰 것에 놀라지 말고 웃으라! 기어가며 속으로 웃는 큰 웃음은 통쾌한 미래를 보장해준다. 웃음은 지혜다.

식과정에서, 이민자는 자신의 인생목표를 상실하기 쉽다. 지금까지의 가치 있는 인생목적보다는 생활 목표에 치우치게 된다. 갑자기 뿌리 잘린 소나무는 당장 물을 빨아올려 자기 몸뚱아리에 수분을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뿌리 내리는 착생의 단계가 모든 이민의 첫 고통의 시기다.

당연히 첫 이민 생활의 고통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손님은 대접받는다. 그러나 장기 투숙자는 푸대접받는다. 이런 이치에도, 대개의 이민자들은 이민을 불현듯 다가오는 고난처럼 받아들인다. 이 세상의 영혼과 불안은 항상 불현듯 우리를 덮친다. 특히 낯선 곳에서의 고통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리라. 이러한 고통의 뿌리는 무엇일까?

첫째는 만족하지 못함에 있다. 만족은 안정이다. 불만족은 불안정이다. 모든 고통의 영양소는 불만족에서 성장한다.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자란다. 모든 인생의 두려움은 얼굴이 다르다. 우린 각자 서로 다른 얼굴을 선택할 따름이다. 이민은 능동적 선택의 설레임보다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두려움(심하면 공포심)이 더 많다. 그래서 선택의 용기와 기쁨보다는 피곤과 불만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새 세상의 두려움에 대한 평화 얻기